

## 박홍근 장관 통합재정사업 평가단 간담회 개최, 연내 “현장 수용성 높은 성과관리 개선안 마련할 것”

- “재정 책임성 강화를 위한 ‘성과중심 재정운용’을 흔들림 없이 추진” 강조
- 평가위원들의 현장경험을 토대로 한 진단과 제언을 가감 없이 청취, 재정사업 통합평가 제도의 개선안을 마련하고 질적 발전을 추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6월 26일(금) 12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이하 ‘통합평가’)’를 수행한 평가단과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평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향후 통합평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였다.

### < 재정사업 성과평가단 오찬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6.6.26일(금) 12:00 / 서울 중구
- 참석: 기획예산처 장관, 재정사업 성과평가단, 조세재정연구원

박 장관은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2,487개의 사업에 대해 심도있는 평가를 진행한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간담회를 시작했다. 이어 평가위원들에게 “올해는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원년으로, 전체 평가대상의 36.2%, 901개 사업에 대해 ‘감액·통폐합’이라는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했다”며, “이는 역대 최고 비율이자 최근 5년간 자율평가 미흡사업 비율(15.8%)의 2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평가는 국민 눈높이에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성과중심 재정운용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내며, “재정사업 성과평가는 단순히 사업을 점검하는 과정을 넘어, 국가 재정이 국민의 삶을 위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나침반과 같다”고 성과평가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제도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하면 실패한 제도”라고 하며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인 만큼 평가 과정에서 느꼈던 개선 과제들을 포함하여 이 자리에서 평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싶다”고 밝히며, 특히 “평가의 객관성·전문성·책임성을 확보하고 평가 결과를 실효성 있게 환류하는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평가위원들은 현장에서 느낀 소회와 개선방향에 대해 가감 없이 의견을 나누었다. 참석자들은 단기간에 방대한 사업을 심사해야 했던 일정상의 한계와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한편,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 심사 등 집단평가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한, 평가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온라인 기반의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특히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지출 구조조정과 사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환류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박 장관은 “오늘 제기된 내용들을 포함해 통합평가 시행 첫해의 전 과정을 냉철하게 되짚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도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평가를 수행한 평가단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연말까지 내년도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지침’을 수립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재정성과국 재정성과총괄과	책임자	과 장	김완수 (044-214-3210)
		담당자	서기관	조문경 (keepangel88@korea.kr)
	통합평가과	책임자	과 장	이만구 (044-214-3250)
		담당자	사무관	박재홍 (jwpark1202@korea.kr)
			사무관	이경록 (eieana3@korea.kr)
			주무관	송현전 (shj87@korea.kr)